

2017년 5월 12일, 성산을 신천리 신천리경로당, 송정희 조사.
강춘심(여, 1948년생, 성산을 신천리)

- 줄거리: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어떤 집에 묵게 되었는데 그 집에서 마를 삶아서 주는데 자신에게 마 콩지를 주는 것을 보고 너무 섭섭해서 그냥 그 집에서 나왔다고 한다.

[제보자] 우리 할망덜한티 옛날 들은 말이주.

그 전에, 어떤 나그네가, 가름을 못 좇안, 사름 사는 덜 못 좇으니까, 산 중에 불빛 반에, 그 집을 찾아가니깐, 마 허는 집이니까, 집을 몇입젠 헨 몇이니까,

이제 뚝날은, 마를 파레 가는 거라. 그디 주인이 머리는 자기가 먹곡, 딸련에, 솟디 낱 딸린디, 자기가 먹곡, 이녁네 아덜은, 가운디, 이 몸뚱일 주고, 자기는, 그, 저, 풀랑질 찢젠 허는 거라.

나그네는, 풀랑질 주니까, 그때 뚝날은 나와 뱃젠. 게난 옛날은 김삿갓 모양으로, 경혜네 헛젠 말은 들어났어. 그런 사름이 잇어났젠.

[조사자] 그 나그네 이름이 뭐마씨?

[제보자] 이름을 어떻 헹 알 말이니게. 그, 옛말로 들어나난 말로 곤는 거주.

[조사자] 풀랑지 주난, 그냥 뚝날 그 집에서 나와 분 거마씨?

[제보자] 응, 나와 분 거라. 너미 섭섭해가지고. 그런 말은 들어났어.

- 핵심어 : 나그네, 마, 풀랑지, 산, 김삿갓